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묵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 .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 . .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읽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쉽게 지나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부딪쳤습니다!”

말씀이 부딪친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때로 그 충격이 클 때 깨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10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인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꼭 필요한 영적 경험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부딪치고 그 말씀에 아파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근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그 근심은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로 인도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현관’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그 근신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이킨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돌이킴으로 인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엔드류 머레이가 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라]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도들이여, 날마다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자신을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우리 안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숨결과 같은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 고요하고 작지만 바위를 쪼개는 폭풍보다도 힘 있는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평온한 밀

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놓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바를 듣는 영혼은 그 말씀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고 부여잡을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과 잘 어울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쇠함스로 주께 훌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쓰 있어서 진리로 수월 거룩케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스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순명을 거는 자 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거대한 권력의 위협 앞에서 힘을 얻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46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 . ”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들, 힘이 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으면 바로 오늘 본문 10절 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구절이죠.

‘Be still’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 할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접어두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세상의 복잡한 소리에 잠시 귀를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귀를 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한홍 목사는 그의 책 [하나님의 경영]에서 ‘하나님이 쉼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책을 볼 때는 띄어쓰기가 중요하다. 글자와 글자 사이, 문단과 문단 사이, 장과 장 사이에 아무런 여백 없이 글자만 짹빡하게 차 있으면 읽을 엄두도 나지 않을 것이다.

중간 중간 여백이 있어야 책이 완성된다. 음악도 그렇다. 모차르트는

“음악은 음표 안에 있지 않고 음표와 음표 사이에 존재하는 침묵 안에 있다”라고 했다.

‘묵상’ (meditation)이라는 말의 라틴어 어원을 살펴보면 거울에 비친 모습을 되받아 좀 더 자세히 본다는 뜻을 갖고 있다.

흐르는 물의 수면에는 영상이 비쳐지지 않는다. 한참 달리다가 들어온 사람은 숨이 가

빠서 바로 말할 수가 없다. 숨을 가라앉히고, 물을 마시고 좀 쉬어야 한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바쁜 일상을 멈추고 시간을 들여 숨을 고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끄고 홀로 있어야 한다. 이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세상이 뒤흔들어놓은 자기 자신을 가라앉힐 수 있다. 이 시간 동안에 성령께 거칠게 어질러져 있는 우리의 내면세계를 정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셀라’라는 히브리어가 자주 나온다. 이는 음악적인 쉼표를 의미하는 단어다. 다윗의 시편의 전체적인 어조를 살펴 보면 ‘셀라’ 이후에 다윗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숙하고 수준 높은 믿음을 보여 준다.

처음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고통과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하던 다윗이 ‘셀라’를 반복해가면서 점점 평온을 되찾는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평안과 담대한 심령으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한다.

오늘 말씀이 그 유명한 루터의 찬양시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모티브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거대한 권력 앞에선 자신의 ‘무려감’은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으로 인도했습니다.

‘쉼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가 깨닫게 된 하나님을 보세요.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가 묵상한 ‘하나님 됨’이 이런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배와 병기되시니 큰 활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말씀 앞에 서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오늘은 본문말씀을 가지고 풀어가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9년 12월 동산지기들과 함께 대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참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흥미 있게 들었습니다. 그 때 있었던 해프닝이죠.

관광 코스 중에 타이베이 시에 있는 세계 4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중국 고궁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을 듣는 일이죠. 거기에 있는 작품들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중국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관광지에서는 이어폰을 하나씩 귀에 꽉고 채널을 맞춘 후에 가이드의 설명을 드습니다. 그런데 동산지기 중에 한 권사님 (박미영 권사)이 계속해서 가이드 설명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채널을 조정하고 배터리의 충전 여부를 확인해도 문제가 없는 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이드 이어폰의 잭을 자신의 ‘스마트 폰’에 연결하고는 가이드의 설명이 안 들린다고 하더군요.

흥미롭지 않은가요?

이런 비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씀묵상이란, 우리 인생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고 소리가 들리는 통로에 ‘잭’을 제대로 꽂는 것입니다.

켄 시게마츠 [예수를 입는 시간]

“묵상하기: 내 안팎의 하나님의 움직임에 가만히 집중하는 것”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영적 지도자인 네덜드 메이 박사는 [중독과 은혜]라는 책에서 ‘중독’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어딕션(addiction)’으로 프랑스어 고어 ‘이따쉬’에서 비롯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지적했다.

이 단어는 대사 같은 고위직 관리에게 ‘종속된’ 하급 관리를 지칭한다. 이 사실은 중독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뭔가에 중독되면 관계적으로 그것에 종속된 것과도 같다.

‘중독’은 꼭 악하고 나쁜 것에 종속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속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유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중독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독’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고 맙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미국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돋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12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데, 그 중 11번째 단계가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과의 의식적인 교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도와 묵상”이 그것입니다.

기도는 흔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묵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조용히 누리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묵상과 침묵 기도 가운데 우리의 자세는 표현하는 것보다는 ‘받아들이는’ 것, 말하는 것보다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정의와 연관하여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6편 10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이 애굽을 탈출해 홍해를 건너던 상황에서 유래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병들이 쫓아오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 했지만,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인도하신 하나님보다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니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모세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에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와 하나님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야하는 순간이 온 것이죠. 세상이 요동치는 순간에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을 마주할 순간이 온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공생애를 보내시는 삶의 한 복판에서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 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고독을 즐긴다!”라는 표현이 어떨까요?

그런데 문제는 태생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 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영성을 추구했던 수도사들은 노동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도의 방법으로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묵상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5세기의 유명한 영성가 요한 카시아노는 자신이 훈련시키는 수도사들에게 ‘바구니’를 짜는 것으로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의를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묵상이란,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정적인’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즐기는 편입니다.

제 머릿속이 가장 빨리 생산적으로 움직이는 때는 혼자 산을 걸을 때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걸으면서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많은 곳에 가서 설교를 하거나 상담을 해야 할 기회가 있습니다.

24시간 강의나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니, 저를 초청한 사람들이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저를 데려다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후에 저를 데리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 그리고 앞에 강이나 바다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한 번 해 보세요. 바다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볼 때는 바다였는데, 거기에 떠다니는 비닐봉지나 빈 깡통, 온갖 쓰레기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물 밖으로 점프하는 돌고래 떼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도의 모양이 참 제각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바라보면 온갖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저분한 나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실수했던 일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과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정해야할 우리의 모습과, 앞으로 살아가야할 모습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정적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목상’은 우리의 삶을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동적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번은 강원도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찬송을 [94장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마음이 담기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절만 부르고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정말 이 기사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기사처럼 살 사람만 부르자고 했습니다.

1.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만약 마음이 준비 안 되었다면 안 부르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찬송을 주님이 들으시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찬송을 들으신다면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전주를 하고 불렀는데,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찬송가 반주는 계속되고 아무도 부르지 않고,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교인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삶의 유익이 있습니다.

김정주의 [안녕, 기독교] 중에 ‘말씀은 임재를 보장한다 -에덴동산에서 타락을 해버리는 아담과 하와 클라스’라는 부분의 글을 조금 옮겨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동산에서도 타락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결핍된 광야에서도 승리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에덴동산같이 완벽하고 아름다워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유혹에 굴복한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결핍되어 있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다.
지금 나의 환경과 상황이 너무 후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 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재로 이것 을 극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평범하거나 후진 일상을 특별하게 만든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 똑같은 일상, 똑같은 스케줄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와 하루 종일같 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라. 그럼 나의 하루는 매우 특별해진다. 나의 하루가 바뀌어서가 아닌 특별한 예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나의 하루가 특별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와 같다.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일이 없어도 아니, 특별한 일이 있을 때보다 더 특별해 진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롭다.

이 말씀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글보다 예쁘지는 않지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절대 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감히 내 안에 기꺼이 제 발로 들어오시게 만든다.

깊도다! 이 신비 내 안에 꿈틀거리던 모든 언어가 그 앞에서 기쁘게 춤추며 길을 잃는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 특별해 지기고 하고, 유혹 앞에서 하나님과 동 행하는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 일상이 우리를 한 없는 타락으로 내 몰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하는 삶에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는 한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묵상의 유익은 무엇인가요?”

“예, 매일 묵상을 하면 하나님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묵상하면 진짜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묵상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매일 묵상할 때 하나님을 자주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의식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묵상의 습관은 우리를 ‘성공적인 묵상가’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을 만들어 줍니다.

묵상은 실용적이기도 하다. 스탠퍼드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얼 박사는 3주간 하루에 10~15분씩만 묵상해도 집중력과 자기 통제력이 강해진다고 말한다.

2~3개월간 하루에 10~15분씩 묵상한 뒤에 뇌 MRI를 찍어 보면 집중력과 통제력에 관여하는 뇌의 신경망이 실제로 자라고 걱정과 우울증을 일으키는 머릿속의 회백질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켄 시게마츠의 [예수를 입는 시간] 중에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생활을 하며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돈을 많이 쓰고, 돈이 없는 사람은 적게 쓰면서 살 수 있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벌써 30년 전의 일이니, 처음 미국생활을 해보는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엇보다 마트에 가서 고기와 과일 야채를 살 때, 다양한 가격에 놀랐습니다.

물론 가난한 유학생이었던 우리 가족은 제일 싼 고기와 과일을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돈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던 시절입니다.

또한 유학 생활 당시 사는 동네마다 도서관이 잘 운영되어 많은 혜택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는 ‘video’문화 였죠.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극장보다는 video 빌려서 집에서 영화를 봅니다. 물론 돈이 없으니 공짜로 빌려주는 도서관을 찾아 갑니다. 조금만 늦게 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고기는 맛이 없고, 과일은 달지 않으며, 음식점은 또 갈 곳이 못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이유에서 인지 모르지만 평소에 먹던 고기가 아닌 조금 비싼 고기를 마트에서 사와 구워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신세계였고, 미국 고기는 한국보다 맛이 없다고 생각하던 관념을 일시에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늘 상 먹던 이전의 고기를 먹는 것이 참 힘들어 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 가면 대접을 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미국에도 참 맛있는 식당이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집회를 갈 일이 있을 때면, 유학시절 자주 가던 식당을 더 이상 갈 일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큰 영적 욕망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이렌’은 바다 한 가운데 사는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바다를 항해하는 뱃사람들을 배에서 뛰어내리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면 배는 섬을 둘러싼 바위들에 부딪쳐 침몰하게 됩니다.

신화에 나오는 영웅 오디세우스도 그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사이렌의 섬을 지나는 순간 오디세우스는 자신과 부하들의 귀를 막고, 자신의 몸을 꽁꽁 묶어서 사이렌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고는 무사히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또 다른 신화에서는 이아손과 아르고선 선원들이 사이렌 섬을 통과할 때 최고의 음악가 ‘오르페우스’를 데려갑니다. 사이렌 섬을 통과할 때가 되자, 오르페우스는 아름다운 하프 연주를 시작합니다. 사이렌역시 아름다운 노래로 유혹을 하지만 오르페우스의 음악이 훨씬 더 아름다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무사히 섬을 통과 합니다.

‘묵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 주변에서 들리던 걱정과 불안, 분노와 두려움 같은 세상의 소리들이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감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세상의 마음들이 설 곳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켄 시게마츠는 [예수를 입는 시간]에서 아주 좋은 비유를 사용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개의 자아 즉 ‘노력하는 아담과 영적인 아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 되어 버립니다.

스티브 잡스의 전기 작가인 월터 아이작슨은 잡스의 삶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잡스는 발명하고 성공하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결혼기념일이나 자녀의 생일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애플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잡스는 가장 가까운 창립 멤버들에게도 회사 지분을 전혀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승리독식의 렌즈를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2015년에 개봉한 잡스의 생애를 다룬 영화는 아이 작슨의 전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는데, 그 영화에서 애플사 공동 창립자 스티브 위즈니악은 잡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너보다 네 제품이 더 나아.”

“다 그런 거지 뭐.”

잡스가 대충 대답하지만 위즈니악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시 공격합니다.

“이건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야. 얼마든지 인품과 재능이 동시에 뛰어날 수 있다고.”

사람은 생산적인 동시에 얼마든지 선할 수 있습니다. 성취를 통해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공허함을 채워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의 특징은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인간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디트리히 본 회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중세 영성가인 토마스 아 캠퍼스의 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작은 책임을 깊이 느끼지 못한다면, 성화의 역사에서 한 걸음 전진했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서면 자신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자 만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더욱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경이로움으로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